

워크숍 3

"전법륜(轉法輪: 법의 수레바퀴를 돌린다)"

“The Dhammachakra Turns”

마유라 사비(Mayura Saavi)/ 원혜영 번역

요약문

'전법륜(轉法輪 **Dhammachakra Turns**)'은 불교 사상, 유적지,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다루는 영화다. 불교 유적지의 힌두화를 시도하고 있는 브라만교에 주목하고 지적하고자 한다. 허구와 다큐멘터리가 혼합된 장르의 이 영화는 인도와 같은 브라만 사회에서 분투하는 불교 철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.

워크숍 발표자 이력:

마유라 사비(Mayura Saavi)는 인도 뭄바이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기자이며 불교 방송 매체에서 진행자 및 TV 앵커로 일해 왔다. 매스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에서 방문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,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. 그녀의 전문 분야는 카스트, 젠더, 불교이다.